



(프라이라이프)는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동부화재(Prime Agent)가 우수 고객님께 드리는 생활 정보지입니다.

2014. 신년호 vol.26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GLOBAL 보험금융그룹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www.idongbu.com

계약·사고접수상담 1588.0100

TM전용상품상담 1566.0100

보험계약대출·신용대출상담 1544.0100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말띠해 신나게 달려보자

2014 재테크 전략
올가이드



CONTENTS

Membership magazine / 동부화재가 드리는 우수고객을 위한 생활정보지

36 + information 자동차 관리
겨울철 자동차 관리 A to Z

38 + information 보험상품
동부화재 HOT 상품 3

06

재테크 포트폴리오 짜기



2014년 재테크 포크폴리오의 방향은 어디일까. 저금리로 인한 재테크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과 관리가 필요한 닷테크 요령.

10

2014년 확 달라진 세법 활용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세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연금저축의 모든것.

16

보험 똑똑하게 관리하기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요즘,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또 어렵더라도 보험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노하우.

22

노후를 위한 연금 포트폴리오



길어진 노후에 연금은 필수. 적절한 상품으로 구성해 보는 포트폴리오와 은퇴후 꼭 필요한 연금저축 3종 세트 전격 해부.

26

어렵지만 가치있는 주식 투자



주식시장이 2013년 후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직접투자보다는 주식형펀드, 대형주와 옐로칩에 주목하고, 펀드투자의 주의점도 알아본다.

32

갈팡질팡 부동산 해법



집,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치솟는 전세값 대비 주택구입이 유리할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방중인 수익형 부동산.

2014. 신년호 vol.26

발행일 2013년 12월 1일(통권 26호)·비매물

발행인 김정남 편집인 김영만

발행처 동부화재 홍보파트 02.3011.321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기획·디자인 (주)이코노믹리뷰 02.6321.3040

인쇄 강원일보사 02.733.7228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프리미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 you



2014년 한 해도 고객님과 함께하며 고객님만 생각하겠습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고객님의 희망찬
2014년을 꿈꾸어 봅니다.

올 한 해도 미래를 위한 꿈과 행복
희망찬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14년도 고객님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처음의 약속을
잊지않고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for you

from

 동부화재

말띠 해 2014년. 지난 해를 돌아보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재테크 시장은 암흑 속이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의 불안은 모두 털어버리고
재테크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부화재 프로미가 함께 합니다.



1 재테크의 시작점 재테크 포트폴리오 짜기



- 저금리로 예금 상품 인기는 사들
- 주식형펀드 인기 예감
- 대출이 있다면 모두 갚은 후 저축을 하는 것이 순서
- 빚이 있다면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기
- 서민금융제도 상품 적극 활용하기



초저금리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가는 오름세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어보인다. 투자형 상품에 대한 매력력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인면서 단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년 안정적인 곳에 짧게 굴러라

저금리로 인한 예금 상품 인기 하락

저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금융시장 불안 완화, 초저금리 지속, 주택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며 예금 선호가 약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계개편에 따른 연금형 상품 수요 증대로 저축성 보험 및 틈새상품인 신탁상품 판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형 상품의 매력 하락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이어 채권시장마저 수익률이 급감해 시중자금의 금리민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위험·중수익 상품 및 절세형 상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 초저금리 환경이 계속됨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즉시연금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질 전망이며 즉시 연금

관련 세제혜택 효과가 일단락되면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매력도 반감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형펀드의 인기 높아질 듯

외국인 주도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긴 했으나 주식형펀드 및 개인투자자의 시장 이탈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상장지수펀드^{주1)}, 해외채권, 주가연계증권(ELS)^{주2)} 등에 분산 투자하는 맞춤형 랩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주식형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1)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주2)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 : 2003년부터 국내에 허용된 금융파생상품 중의 하나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빚테크도 재테크다

살다보면 지게 되는 것이 빚.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 담보대출로 구입한 집, 3개월 할부로 산 옷도 빚이다. 저금리 시대 빚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효율적으로 다시 짜보는 빚 청산 포트폴리오.

빚의 규모를 파악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금융 포트폴리오와 재무설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각종 신용대출,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빚테크의 첫 번째 스텝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라

고금리는 저금리로, 갚을 수 있는 대출은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운다. 연 20% 내외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현금서비스는 정리 대상 1순위다. 이자가 연 10%대를 넘나드는 신용대출, 각종 마이너스 통장도 저금리로

같이타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 중 한시적으로 금리 덤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때를 노려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저축보다 상환이 먼저다

빚은 잔뜩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니 저축을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연 10%가 넘는 이자를 내면서 고작 4~5%대의 예금 금리를 챙기려고 돈을 묶어두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축은 대출을 모두 갚은 후에 하는 것이 순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라

한 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생활비에서 대출 상환자금 목록을 추가하고 이것을 지출 1순위로 둔다. 식비, 교육비, 할부금, 대출이자 등 지출할 내역이 줄을 서

있지만 일정금액의 대출 상환자금을 꼭 떼어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살아보라. 자연스레 지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비용들이 세이브되면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

뭉치면 수월하다

여러 군데 대출이 널려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설정비 등의 걱정이 없다면 빚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각각의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상환 스케줄을 세우는 데에도 훨씬 편리해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서민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라면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등급 5~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자금대출을 도와주는 새희망홀씨대출을 비롯, 미소금융, 햇살론, 주거안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 보자.



2, 2014년 확 달라진 세법 실전 적용하기



• 연말정산, 근로소득 계산부터 시작

•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사용



•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제대로 알아야

• 고소득자, 연금저축 해지는 신중하게

지난 해 세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한다. 반면 정부의 말처럼 저소득층의 복지도 증가될지 의문이다. 결국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2014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탈 수 있을까?

지난 해 정부는 연소득 5,5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의 추가 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연금저축 불입금, 보험·의료·교육비 사용액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한 평균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늘어나는 자녀수 등을 고려한다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소득공제 등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들은 2014년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세가 늘어나는 직장인들은 늘어난 증가분에 10% 만금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5,500~7,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버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표한 2~3만 원의 세 부담 증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근로소득 계산부터 시작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본인의 총급여(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야 근로소득금액이 책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전 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대폭 낮췄다. 즉 과세의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금액 자체를 모든 계층에서 높인 것이다. 중산층,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한 보조를 받음으로써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상쇄되는 구조다.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빼고 소득세율(6~38%)을 곱하는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을 구하고 난 다음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해 전자가 많으면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받고, 후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흐름이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편에서는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대거 세액공제로 빼버렸다. 올해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는 소득을 아예 없는 것으로 쳐 세금을 적게 책정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빼주는 항목이다. 즉 세금의 액수를 일정부분 공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15%인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4,600만 원(연소득 약 6,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율 12%인 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소득세율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세금 증가 요인이 된다. 보험료, 연금저축을 많이 들었던 이들은 공제한도의 약 3% 만큼 예전에 비해 손해를 보는 셈이 될 것이다.

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

창업투자조합^{주1)}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주2)},

주택자금 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 외에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7만 원으로 바뀐다. 다만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는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남아 있으므로 현행 공제한도 (2,500만 원)가 유지된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공적연금공제와 건강보험료공제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만 소득공제로 남아 있고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사용

이번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전략으로, 아직 남아 있는 상호금융 준조합원 예탁금,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아직 남아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이용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가의 부동산이 있다면 2014년 안에 매도하고, 증여는 2015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주1) 창업투자조합: 정부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일반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투자클럽(계의 일종)을 만들어 일정 기간동안 창업기간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제도다.
주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투자한 투자금.

체크! 체크! 달라진 연말정산

◎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항목	공제 내용	개 정
다자녀 추가	• 자녀 2인 100만 원 • 2명 초과 시 1명당 200만 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 원 •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 6세 이하 자녀당 100만 원	
출산 입양	• 출산 입양 당해 연도 200만 원	• 현행 유지,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단,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 1,500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 ※ 총 급여 2,500만 원 수준
장애인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 원	
부녀자 공제	•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공제	• 한부모 100만 원	

자료 : 기획재정부

◎ 특별공제 달라진 내용

공제항목	공제 내용	개 정
의료비 공제	• 총 급여 3% 초과분(700만 원 한도) •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 사항은 현행 유지)
교육비 공제	•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 원 • 초·중·고 학생 300만 원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 세액 공제율 12%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 사항은 현행 유지)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전액(100만 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 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불입액 전액(300만 원 한도)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도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면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혜택은 아직도 매력적이다.

세법 개정에도 연금저축 매력 '살아있네!'



2013년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봉 3,75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적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소득자라고 해도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22%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상품 외에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거의 없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제대로 알아야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 소득에서 차감한 뒤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세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총소득은 건드리지 않고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24만 원(과표구간 1,2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6% 적용)에서 최대 152만 원(과표구간 3억원 이상, 소득세율 38% 적용)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48만 원(40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이 적용된다. 기존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1,2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오히려 24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지만,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던 3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104만 원의 세금을 덜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기부금, 의료비 등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매력, 고소득자도 해지는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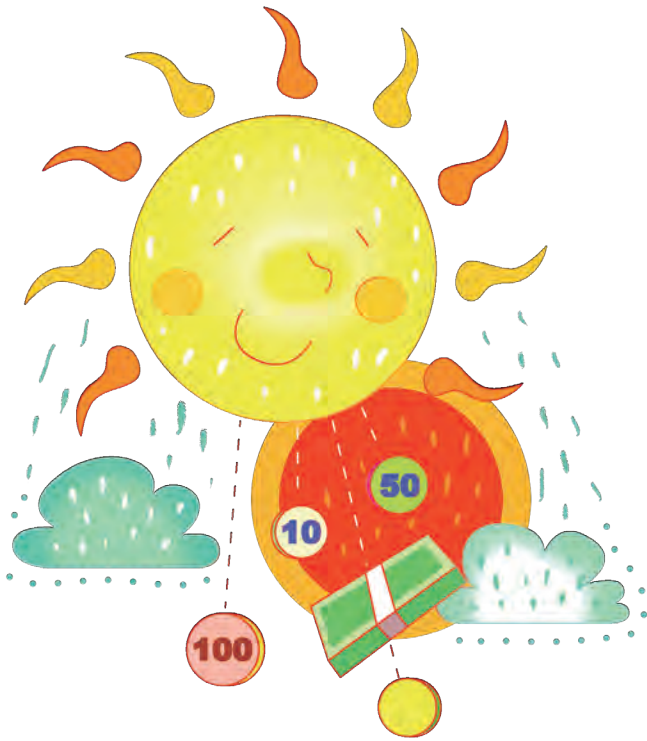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는 것 뿐이다. 실제로 연소득 3,400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연금저축공제만 적용,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현행 1,235만 원, 개정 1,765만 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 연금저축을 400만 원 납입했을 때 세금은 58만 7,500원이었지만,



연금저축이 없다면 106만 7,500원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으로 내야 할 세금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만약 의료비나 교육비공제, 신용(체크)카드 등을 더한다면 과세표준은 더 줄어들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소득자도 절세 효과

연봉 7,000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행 소득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628만 원에서 532만 원으로 96만 원 줄어 고소득자도 절세 효과가 있다. 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646만 원에서 598만 원으로 48만 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보다 절세 혜택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만한 절세상품은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도 가입·유지가 유리하다. 아울러 만약의 경우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을 부과하며, 해지환급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 사망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지한 경우라면 16.5%로 낮게 과세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세율이 아니다. 결국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유지한다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을 해지했을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3, 어려워도 꼭 챙겨야 하는 보험 똑똑하게 관리하기



-  • 보험, 해지하면 손해
-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  • 급할 때 일부 해지, 보험료 감액제도
- 감액완납제도, 최소한의 보장 유지하기
- 납입일시중지제도로 1년 미뤄 내기

저금리는 계속되고 주식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면 변액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기존 변액보험 투자자들도 펀드변경권을 활용, 투자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현명하다.

주식시장 살아난다면 변액 보험을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을 통해 투자, 향후 투자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즉 투자형 보험으로 수익이 높을수록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높아진다.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는 변액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기본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만큼 기대수익도 높다.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등은 변액의 기능을 추가한 종신·연금보험이다. 변액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헷지^주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수익에 따라 추가수익도 얻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장기투자를 위해 1년에 최대 12번까지 변액보험 내에서 투자하는 펀드를 갈아탈 수 있게 한 ‘펀드변경권’을 활용, 장기투자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만하다.

2013년을 보면 2014년을 알 수 있다

2013년 변액보험 내 펀드 수익률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주식시장이 상승한 곳에 투자한 펀드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수익률이 낮은 펀드도 주식형이 상당부분 차지했다. 2014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2013년과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몰리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선진국과 이머징 주식에 분산투자하고 채권은 관망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펀드변경권 활용, 장기투자 고려

변액보험은 초장기 상품이다. 대부분 상품이 초기에 집중해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원금 이상을 찾을 수 있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소득 등 모든 수익에

주) 헷지(Hedge) :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 보험료 줄여 유지하는 방법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정말 필요해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상황 변화에 따라 더는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유지되거나,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보험은 장기로 유지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 받아 수익이 높아진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3개월째에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약이다. 해약을 하면 더 이상 보험료 부담이 없을뿐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해지하면 손해라는 점이다. 아울러 해약 이후 경제사정이 좋아져 다시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 인상, 재가입 심사 등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건강이 나빠졌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훨씬 열악한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보험료 부담 줄이고 보험 유지하는 제도

보험 유지가 어려울 때 보장자산이나 보장기간을 줄이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감액제도'는 사고시 받는 보험금 액수를 줄여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최대 1억 원을 보장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줄이면 보험료도 반 정도로 줄어든다. 보장 내용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해지'라고 볼 수도 있다.

줄이고, 빼고~

'감액완납제도'는 감액제도처럼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장을 유지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래 계약조건으로 환원하지 못한다. '특약해지제도'도 있다. 특약을 줄이면 그만큼 보험료도 줄어든다. 감액제도와 비슷하지만, 주계약이 아닌 특약을 줄인다는 점이 다르다.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이는 감액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험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기간을 줄인다. 이 기능 역시 한 번 신청하면 환원할 수 없다.



일시중지와 대출납입까지

'납입일시중지제도'는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험료 납입 종료도 1년 늦추는 제도이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총 횟수나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동대체납입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다. 자동대체납입제도는 만기(해약)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급금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만기(해약)환급금 내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낸다. 약관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약관대출금이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1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면 재신청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두 제도는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대체'는 만기(해약)환급금 그 자체를 줄여가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며, '대출'은 만기환급금은 그대로 두고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높은 이율의 확정금리 상품이라면 '대체'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고 변동금리형 상품이나 확정금리형이라도 금리가 낮다면 약관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유리하다. 그러나 과거 판매했던 10% 이상의 확정금리형 상품이라면 만기환급금이 많을수록 좋으므로 이런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좋다.

내 차는 물론, 모든 차량 사고 시 가족의 상해를 보장하는 동부화재 Family 통합보장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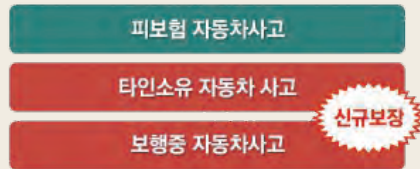
글 김옥철 선임과장(동부화재 자동차 상품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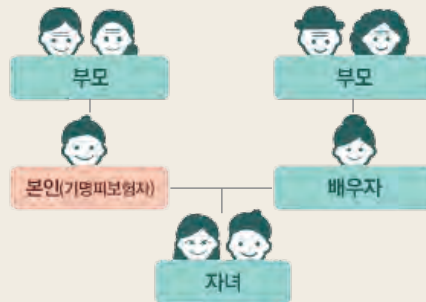
김동부 씨는 얼마 전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당시 큰 이상이 없는 듯하여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난 김동부 씨는 다음날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운전자에게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차일 피일 미루는 운전자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늦어지고 몸도 점점 아파와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했다.

만약 동부화재 고객이었다면, 위 사례와 같은 고민은 없었을 것이다. 바로 업계 최초로 내차는 물론, 타인소유의 자동차의 탑승중 사고와 보행중(자전거 탑승중) 자동차사고까지 보장하는 프로미카자동차보험 “Family 통합보장 플랜”이 있기 때문이다. Family 통합보장 플랜의 장점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타인 소유 자동차의 탑승중 사고 또는 보행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손해가 보장된다. 둘째, 신규 보장되는 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온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다.

1 내차는 물론 타인소유 차량사고, 보행중 자동차로 인한 상해 보장



2 내 자동차보험 하나면, 가족 자동차 상해·사고 걱정 끝!



셋째, 약관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자기 과실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포함한 상해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 넷째, 동부화재를 통한 선보상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여 유용하다.

Family 통합보장 플랜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애를 보장하며 가입금액은 1억, 2억, 3억, 5억 중 선택할 수 있어 사고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이제는 자동차보험도 가족보장의 시대! 내가 가입한 Family 통합보장 플랜이면 우리 가족 자동차사고는 오늘부터 안심! 지금 바로 자세한 상품안내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3 고객님의 과실부분까지 보장하여 과실다툼없이 상해손해액 전액보장



4 '선보상' 서비스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금 지급




※ 선보상이란? 동부화재가 타보험사 보험금 포함, 상해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며, 지급 후 동부화재가 타보험사와 보험금을 정산하여 편리한 보상서비스

※ 가입금액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하여 각각 개별한도로 적용됩니다.
- 예 : '2억' 가입시
→ 사망 2억, 부상 2억, 후유장애 2억 한도
※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해당 차량 가입보험으로 처리).

※ 상기내용은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약된 내용으로서,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장하지 않는 손해 등은 실제 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타 세부 보상 및 면책 등 상품내용은 동부화재 담당 PA 및 약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정된 노후를 위한 연금 포트폴리오



- W** • 연금의 중심, 국민연금
- 소득대체율 20%를 채워라 퇴직연금
- 연금이 없다면 주택, 농지연금에 주목
-  • 안정성 높은 연금저축신탁
- 수수료 낮고 세금은 절감, 연금저축보험

인생은 길고 노후는 더 길어졌다. 길어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연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다섯 가지 연금제도를 제대로 안다면, 인생은 더욱 여유로워질 것이다.

길어진 노후와 함께할 다섯 가지 연금제도

1, 연금의 중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한다. 연금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구매력 저하를 방지한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절차다.

2, 보험사 상품이 유리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까지 연금액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4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넣을 수도 있다. 2013년 개정세법에 의해 201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사 비중이 80% 정도다. 이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유리하다는 반증이다.

3, 20%를 채워라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0%를 목표로 한다.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이면 수령 가능하다. 퇴사할 경우 개인형퇴직제도로 옮겨진다. 개인의 자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4, 연금보험

상기의 상품들에서 완성하지 못한 연금액을 채우는 것이 목표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나 배당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5, 연금이 없다면 주택·농지연금

은퇴 시점에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입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퇴 후 꼭 필요한 연금저축 3종세트 전격 해부

100세 시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은퇴 후 소비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자산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설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저축 상품에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이 포함된다.

1,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높으나 안정성은 낮아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연금저축펀드는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재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과거 10년간 월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는 그 어떤 연금 상품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 어떤 상품보다 손해를 볼 확률도 높았다. 펀드 운용사에 따라 운용 수익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다. 더불어 연금저축펀드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연금저축신탁 안정성 높지만 수익률 저조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부른다. 은행 상품인 만큼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안정성이 높고, 지점이 많아 편의성이 높다. 그러나 수익률은 낮다.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적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 정도이다. 원금에 대해 매년 1%의 신탁보수가 부과된다는 것도 단점이다.

3,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낮고 세금 절감 효과 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연금저축보험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월리금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험이 적용된다. 종신연금보험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과 다채로운 맞춤형 선택지 외에도 최저보증이율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개인연금보험 알고자!

장기투자 원한다면 연금보험으로

연금은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 투자는 기본이다. '노후 준비'라는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상품을 1순위로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세법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보험에도 종류가 많다.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형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중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 것인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세상품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요즘 연금저축보험은 거의 유일하게 세테크가 가능한 상품이다. **동부화재 스마트연금보험**

5, 주식? 펀드? 채권? 어렵지만 가치있는 투자



- 채권보다는 주식형펀드에 집중
- 간접투자로 주식비중을 늘려라
- 미국, 유럽, 중국의 회복세에 의존
- 조선, 자동차, 은행이 증시를 주도
-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펀드 고르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밝다. 그리고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신흥국과 유로존에 대한 전망도 밝은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식 시장은 맑음 주식형펀드에 집중하라

2014년 금융시장은 채권 수익률은 완만한 가운데 주식의 수익성이 2013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신흥국가들의 기업이익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수출 및 국제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 및 중국, 대만 등의 주식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까지 국가재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유로존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유럽 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우량 기업들의 수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간접투자로 주식비중을 늘려라

2014년에는 간접투자를 통해 유럽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경상수지가 안정적이고 국제 교역규모가 큰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일본 제외) 국가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투자수익률에 유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 상품으로는 룡숯 전략^{주1)}의 헷지펀드^{주2)}와 적립식 주식형 펀드^{주3)}, 미국주식인컴펀드^{주4)}, 브라질 채권 등이 있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치주와 인덱스 펀드^{주5)}를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미국주식인컴펀드의 경우 미국배당주에 투자해 꾸준히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브라질 채권의 경우 만기가 길지 않고 중도 환매가 자유로우며 비과세인데다 6%에 이르던 토빈세^{주6)}가 폐지 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거기다 환율 리스크 역시 브라질 정부의 개입으로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채권의 만기가 2016년 1월일 경우 환율이 20%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정기예금의 수익률 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1) 룡숯 전략(Long-Short Stategy) : 성향이 비슷한 두 개의 종목에 골라서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는 전략.
 주2) 헷지펀드(Hedge Fund) :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업.
 주3) 적립식 주식형 펀드 : 주식형펀드를 여러 번에 나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
 주4) 인컴펀드 (Income Fund)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주식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이자, 배당 등 인컴 계인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주5) 인덱스펀드(Index Fund) : 선정된 목표지수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주6) 토빈세 :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금융 거래세.

국내 증시는 차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안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금리 혼돈, 침체 늪에 빠진 부동산, 다발적 정치·경제적 악재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옳은 길은 있다.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2014년 시장 전망을 살펴보자.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대형주와 옐로칩에 주목!

미국과 중국 중심의 회복세에 의존

2014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 증시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2013년의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시장의 성장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회복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국 경기가 축소된다면 한국-이머징 시장(EM·Emerging Market)^{*)}으로 그 여파는 파급될 것이다. 2013년 말부터 글로벌 투자의 화두는 저금리 지속 및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응이다. 2014년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했을 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미국, 유럽, 중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다.

떠오르는 시장은 선별해서 투자해야

그렇다면 이머징 시장은 어떻게. 양적완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인도·인도네시아·터키 등 다수의 이머징 국가가 흔들렸고, 대규모의 자금 유출을 겪어야 했다. 양적완화 축소 지연 결정으로 브라질 등 일부 EM에는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EM은 한국과 중국뿐이다. EM이나 프런티어 마켓은 아직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에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통화정책, 재정 안정책을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EM 중 중국이 망가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은 3분기 7% 후반대를 유지하고



따라 삼성물산 등 건설과 은행 등 내수 관련 옐로칩이 오를 것을 전망된다. 옐로칩은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된 상황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들이 지수를 공격적으로 끌어올 것이다. 지수가 올라가면 중소형주 중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조선·자동차·은행·IT 관련주 주목

증권사들은 2013년 하반기에 이어 2014년 증시를 주도할 업종으로 조선, 자동차, 은행, 반도체, 정보기술(IT)을 꼽았다. 반면, 운송,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증권업종은 시장 전체의 이익 하향 폭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있어 이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 종목 추천

국내 대형주→옐로칩→가치주 상승 패턴

2013년 3월 말과 10월 초를 비교하면 일반 투자자의 주식 잔고 비중이 줄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총액이 6조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빠져서 2.5~3% 정도 자산 잔고가 감소했다. 주식 잔고가 줄었음에도 주가지수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소수의 대형주가 지수의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을 예측해 봤을 때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실적이 좋았던 몇 군데 말고는 올라간 종목은 극히 적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시장은 대형주를 위주로 움직이고, 그 뒤를

◎ 증권사별 2014년 코스피 예상 범위

증권사	최저~최고
KDB대우증권	1,850~2,300
한국투자증권	1,950~2,250
KTB투자증권	2,000~2,500
신한금융투자	1,850~2,320
키움증권	1,900~2,400
KB투자증권	최고 2,400
하이투자증권	최고 2,350
하나대투증권	최고 2,380
LIG투자증권	1,900~2,260
동부증권	1,800~2,300

*) 이머징 시장(Emerging Market) :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흥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성장률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이른다.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면서 환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추후 지수 상승세를 감안해 이 시점에서 주식형 펀드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잘못 고른 펀드, 가슴앓이 수년 가기도 한다. 펀드,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

펀드 투자 이것만은 명심!

펀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위험성이 큰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때는 단기 수익률 외의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출시 시기와 운용사·운용액, 누적 수익률이 그것이다. 같은 종류의 펀드가 여러 개 있다면 출시된 후 장기간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 절대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상대적인 순위는 자산운용사나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운용자산 규모가 크다면 꾸준히 펀드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신뢰도가 높다. 최소 3년 이상 됐고, 현재까지 운용 중인 국내 주식형

운용사들의 장기간 실적 체크 중요

투자자들을 가슴앓이하게 만드는 불량 펀드도 존재한다. 하위 100개 펀드 중 3년 동안 꾸준히 10% 이하의 큰 손실 폭을 기록한 펀드는 33개나 됐다. 그중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건설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이 최악의 펀드로 꼽혔다. 33개 10% 이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가 23개로 가장 많았다.

운용사들의 평균 수익률 편차도 컸다. 더 장기간의 실적을 보기 위해 2009년 이후 4년 10개월간 연간 수익률 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밸류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과 그로스힐자산운용, 트리스톤자산운용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운용, 흥국자산운용, 하나UBS운용 등은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다.

펀드(설정액 10억 원 이상) 1,200종의 수익률을 분석해 보고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되, 편차가 크지 않은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몇 년간 꾸준한 수익률 확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영자산운용과 한국밸류자산운용, 교보약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우등생 그룹에 속하는 펀드 중에서도 상위권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3년 동안 이 3개 운용사의 펀드 7개가 꾸준히 40%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신영과 교보약사는 배당주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좋았다. 주가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인덱스펀드 및 ETF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현상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6,

그래도 집, 사야 할까? 갈팡지팡 부동산 해법



- 저금리가 지속되면 내 집 마련이 이득
- 기후, 인구 등 부동산의 변수를 따져라



- 과잉공급으로 오피스텔 시장은 흐림
- 상가시장은 회복 기미
- 분양형 숙박시설 활황

무수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2013년. 전에 없던 고강도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악벌' 지속 여부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취득세 영구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집 값 전망은 나쁘지 않다. 내집 마련의 적기라는 데 큰 이견도 없어 보인다.

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 전 NH농협증권 강승민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저금리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구입 가치가 임차가치보다 높아지는 국면에 이르렀다. 즉 전월세살이 보다 내 집 마련을 해야 이득이라는 얘기다. 과거 6% 내외 수준의 대출금리가 현재 4% 이하로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비용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반면 전세가비율은 10년 내 최고점까지 높아져 임차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2014년 '전세난'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오르는 '커플링상승' 형태를 떨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함진영 팀장은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매년 10% 이상 꾸준히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불안감은 당장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한다.

심리, 기후, 인구 등 변수 많은 부동산
KDD&C 김기덕 대표에 따르면, 부동산을 재테크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투자방식 탈출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 경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점점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장 레저문화부터 바뀌고 있다. 부동산 트렌드 역시 이러한 기후적 측면까지 신경써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업 경제 지표도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올 한해 각종 부동산 부지의 발표와 산업단지의 육성 발표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정부부처가 대규모 이동을 함과 동시에 천문학적 자금이동과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뤄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는 ▲저금리와 장기모지기론 확대 ▲주택 수요 회복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전세 확대로 인한 주거비용 증가를 꼽을 수 있다.



2014 주목! 돈 벌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확산으로 재테크에 대한 뾰족한 대안도 없을 뿐더러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초기 투자자금이 적어 부담감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전히 임대시장은 매력적이다. 2014년 임대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투자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쉽게 손 댈수 있는 물건 중 하나가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은 과잉공급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에 비해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반등세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FR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연구원은 “최근엔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한 뒤 “그 만큼 입주 물량 감소도 예상되긴 하나 그 시점이 2014년 하반기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 때쯤이면 수익률도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피스 붐’이 일어난 강남과 분당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물량이 남아돌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수익발생은 단순 분양물량이 아닌 입주 물량으로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당장 착공 물량이 감소한다해도 수익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 사정도 심각해졌다. 단기간 급증한 오피스와 같은 이유로 소형 원룸 중심의 공급실패가 우려되는 상황. 안 연구원은 “도시형 공급주택 역시 지나치게 늘어난 탓에 현재 평균 수익률은 5%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한 뒤 “당분간 하락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회복 기미 보이는 상가시장

상가시장 역시 보증금과 월세가 떨어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가정보전문업체 점포라인이 2013년 3분기(7~9월) 서울 소재 상가점포 매출 1,753개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떨어진 곳은 25개구 중 70%에 육박하는 17개구로 집계됐다. 그나마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조성과 함께 상업시설 공급이 줄어들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하락이 멈춘 것이다. 서울 시내의 경우 2011년 이전까지 상가 시장 분위기 위축으로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최근엔 주요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곤 신규 상가 공급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덩달아 상가시장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와 세종시, 동탄2신도시, 마곡지구 등 지역 상가쪽이 주목되고 있다. 분양이 활발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해 2014년 즈음이면 이곳 지역들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투자층을 다시 끌어들이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의 경기가 좋지 못한 만큼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안 연구원은 “주상복합상가, 스트리트형 상가 등은 기대만큼의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해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분양형 숙박시설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925만 1,000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만 60%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류열풍이 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숙박업체가 호황을 누렸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제주 등 특정 관광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90%를 웃도는 가하면 객실부족 현상 등으로 투자가치를 높여놓은 것이다. 이러한 숙박시장의 활황은 2014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호텔 등 분양형 숙박시설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같다면서도 “다만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고 있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은 투자가치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달라진 부동산 세금

항목	개정 내용
전·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가구주가 공제받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공제율을 최대 80%에서 60%로 축소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근로·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외

자료 : 기획재정부

이것만은 꼭! 겨울철 자동차 관리 A to Z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와 눈, 얼음 등으로 인해 차량 사고 및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겨울철 필수 자동차 관리법 TOP 10 을 알아 보도록 하자.

글 정행기 과장(CNS프로미서비시스템)

차량무상점검 필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혹한을 대비한 차량 점검이다. 가까운 프로미카월드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차량 전문가의 꼼꼼한 무상점검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부동액 등 20여 항목의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액 점검

차량은 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면 냉각수가 결빙되어 엔진 및 냉각 계통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기온이 내려가기 전 반드시 냉각수의 농도를 점검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냉각수 농도는 물과 부동액 원액이 50:50의 비율로 혼합된 상태다. 육안으로는 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프로미카월드에 가면 점검이 가능하다.

겨울 전용 타이어 장착 및 체인 구비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노우 타이어로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 스노우 타이어 장착 시 평소보다 주행속도를 줄여서 운행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체인을 구비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워셔액 점검

눈이나 비가 올 때, 혹은 온 후에 워셔액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워셔액은 수시로 양을 체크하고 보충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규격에 맞지 않는 비순정품 사용시 워셔액이 결빙되어 워셔 모터가 파손 되고 안전 운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결빙되지 않는 겨울 전용 워셔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디젤 차량 엔진관리

혹한 시 디젤연료 성분중의 하나인 파라핀 성분이 분리되면 차량 시동성이 나빠질

수 있다. 차량 주차 시에는 지하 주차장 등 외기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하고 시동 후 즉시 출발하지 말고 일정 시간 공회전을 유지해주면 엔진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예열플러그는 미리미리 점검

디젤차량의 경우 가솔린차량에 비해 빙점이 낮고 점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예열 플러그를 사용하는데 날씨가 추워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예열플러그의 이상 가능성이 높으니 가까운 프로미카월드를 방문해 무상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겨울철 엔진 시동

겨울철이 되면 엔진 구동부의 저항이 증가하고 배터리 및 시동 모터의 성능이

저하되어 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동 후에는 워밍업을 한 후 출발해야 엔진의 수명이 연장되고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다.

배터리 전압 점검

기온이 내려가면 배터리의 시동 전압이 낮아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면 모포나 형겔 등으로 배터리를 감싸 완전 방전을 예방하고 배터리 방전이 지속될 시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 프로미카월드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보다 좀더 저렴하게 교체 가능하다.

겨울철 주차 요령

주차 브레이크 사용시 브레이크가 결빙되어 차량 출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수동차량은 경사에 따라 기어를 1단 혹은 후진에 위치하고 자동변속 차량은 (P) 위치로 하고 고임목을 설치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 주차한다.

겨울철 안전운행

눈길 또는 빙판길 주행 시에는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고 정지 시에는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안전하다. 과속, 급제동, 갑작스런 핸들 조작은 매우 위험하다.



동부화재 HOT 상품 3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슨 상품을 골라야 할 지가 가장 관건이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동부화재의 가장 HOT한 상품 3가지.

처음이라 신중하게 내생애첫건강보험

내가 직접 가입하는 내생애 첫보험. 20~30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용보험으로 심플한 담보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는 보험이다.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 등 꼭 필요한 담보로 심플하게 구성하였으며, 치핵, 축농증 등이 포함된 21대 질병수술비를 보장해준다. 또한, 우수고객에 대해 영화예매권, 주유상품권, 제과교환권 등 젊은층에 유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아보장 강화 스마트아이사랑보험

암진단비 최고 1억 2,000만 원, 수술비 최고 310만 원, 입원일당 최고 20만 원(태아형), 자녀 치아를 60세까지 보장한다. 출산위험담보 등 고령산모 위험보장 및 선천이상수술비 및 저체중아

입원일당 등 태아보장을 강화한 것이 장점이다.

우리집 지킴이 스마트가정보장보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포함하여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보장하는 상품이다. TV, 세탁기, 냉장고 등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주며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1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보장한다.

동부화재와 만나는 또 다른 세상 SNS

- 1 곁에 있어 든든한 페이스북**
www.facebook.com/idongbu
트렌드에 맞는 이슈성 콘텐츠와 함께 지속적으로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 2 알찬 소식이 가득한 트위터**
twitter.com/dongbupromy
동부화재의 각종 소식들과 운영 중인 SNS채널의 정보를 알린다. 자체 이벤트도 진행.
- 3 엄마들에게 유익한 아이사랑 블로그**
Blog.naver.com/dongbu_promy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병의 치료법과 예방법 등 육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다.
- 4 차에 관한 모든 것 내 차 사랑 블로그**
www.driveind.com
2013년 6월에 오픈한 동부화재 SNS로 운전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과 드라이브 코스 추천, 유망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1위 동부화재 세계를 넘다!

대한민국 손해보험업계 최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World지수 선정!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5년 연속 국내 1위 동부화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고객이 만들어주신 영예, 고객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단순히 재무적 평가만이 아닌 지배구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자수이자 세계 최고의 권위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평가 기준입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World지수 손해보험 업계 최초 선정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World지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 중 가장 높은 단계로서 글로벌 표준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자수입니다. 전세계 2,523개 기업 중 333개 기업만이 편입되었으며, 국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동부화재가 선정되었습니다.